

駱賓基의 韓人題材小說에 나타난 “孤獨”과 “疏外”양상 研究

裴桃任*

차 례

- I. 들어가며
- II. 創作 生涯와 背景
- III. “孤獨”과 “疏外”양상
- IV. 현재적 의미
- V. 나오며

I. 들어가며

동북지방은 19세기말부터 제정 러시아와 일본의 세계패권을 피한 식민지 침략의 전략적 교두보였고, 계속된 전란 속에서 특정한 시대의 사회성과 문화성을 갖게 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의 승리 후에, 한국에서의 식민지배에 이어,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군사세력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1931년 9월 18일 柳條溝事件(만철폭파사건), 즉 “9·18사건”을 조작해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11월에 蘇聯과 滿洲 국경을 이루는 東北3省(吉林·遼寧·黑龍江省)을 장악하였다. 일본은 1932년 1월에 張學良(1898-2001)의 反滿抗日 거점인 진저우(錦州)를 점령하였고, 3월 1일에는, 동북지방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 溥儀(1906-1967)를 앞세운 “滿洲國”을 세우고, 이후 熱河와 蒙古省을 추가 지배함으로써, 중국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¹⁾ 이로부터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pei6203@hanmail.net

터 일본의 동북지방에 대한 식민 착취와 파괴는 1945년 일본의 패망까지 계속되었다.

동북지방의 특수한 역사성과 시대성은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중일전쟁(1937-1945) 시기인 1930-40년대의 “戰爭”과 “抗日” 모티브가 되었으며, 당시 抗日救國 제재 중에서 동북작가들의 작품의 영향력이 비교적 컸다고 할 수 있다. “동북작가”란, 일반적으로 “9·18”사변 후 山海關 서쪽으로 유랑한 작가들로서, 그들은 고향 동북지방이 적에 의해 점령된 것에 대해 깊이 비통함을 느끼고 일제의 침략에 대해 의분을 품어 그들의 소설작품 중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기탁한 작가들을 말한다.²⁾ 蕭軍(1907-1988)의 『8월의 향촌(八月的鄉村)』(1934), 蕭紅(1911-1942)의 『생사의 마당(生死場)』(1935)과 『후란강 이야기(呼蘭河傳)』(1940), 舒群(1913-1989)의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1933), 羅烽(1909-1991)의 『후란강가(呼蘭河邊)』, 白朗(1912-1994)의 『반역의 아들(叛逆的兒子)』(1933), 『피난일기(逃亡日記)』(1933)와 『함락전후(淪陷前後)』(1940), 李輝英(1911-1991)의 『완바오산(萬寶山)』(1933)과 『마지막 수업(最後一課)』(1932), 端木蕻良(1912-1996)의 『커얼친치초원(科爾沁旗草原)』(1934)과 駱賓基의 『국경선에서(邊陲線上)』 등 동북출신의 망향작가와 그들의 작품에서 국난시기에 抗日·抗戰의 대열에 뛰어들고,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창작활동의 “抗日”과 “鬭爭”이라는 특정한 시대 정서를 거의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동북작가 가운데 駱賓基(본명 張璞君, 1917-1994)는 소설가요 산문가이자 보고문학 작가로서, 또 金古文 考證學者로서 알려졌고, 그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동북작가 계열, 戰爭文學 내지는 抗戰文學 담론 하에서 평가되고 있다. 그의 문학경향은 中華人民共和國(이하 “신중국”) 성립이전에는 革命, 抗日 혹은 戰爭 담론 하에, 신중국 성립 이후에는 사회주의 현실주의 문학론 아래 문혀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면이 있다. 처녀작 『국경선에서』를 발표한 이후 50여 년에 이르는 그의 긴 창작 생애에 비해, 그는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대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심층적인 사색, 戰亂이 가져온 人性的 破해와 生活苦에 대한 깊은 연민,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동경, 잔잔히 묻어나는 동북 고향과 뿌리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전체 작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테마이다.

저자는 제3단계 BK21사업(2007학년도) 新韓중문화전략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임.

1) 秦風, 『1904-1948:歲月東北』,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제50-78쪽.

2) 嚴家炎, 박재우 옮김, 『현대소설유파사』, 서울, 청년사, 1999, 제22쪽.

제국주의에 맞서는 민족해방 운동과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양대 주제로 대변되는 시대에 駱賓基는 자신이 처한 특정한 시대와 역사적 상황을 자전적인 경험을 소재로 삼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抗日이니 민족적 갈등이니 같은 표면적인 거시적 담론 하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못했던, 보편적인 인간 내면의 “고독”과 “소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사색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駱賓基의 장편소설 『국경선에서(邊陲線上)』(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4), 『혼돈 : 장부웨이 가족사(混沌 : 姜步畏家史)』(上海, 新群出版社, 1947)와 『루어빈지 소설선(駱賓基小說選)』(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2)에 수록된 단편소설 「소작농가의 아이(莊戶人家的孩子)」³⁾ 3편을 기초자료로 삼아,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두 항전시기에 쓴 이 3편의 작품에서 작가는, 한 가정의 몰락사와 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통해 특정한 시대와 역사의 낙인처럼 찍힌 “고독”과 “소외”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 3편의 소설의 무대는 작가가 태어난 동북 고향땅이자, 한국 淸津港과 중국과 러시아 세 나라의 접경지역의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살아야 했던 척박한 곳이며, 시대적 배경은 奉天군벌이 지배하던 시기와 만주국 치하에서 바야흐로 전국적인 전쟁으로 넘어가는 사회적 혼란기이다. 駱賓基는, 『국경선에서』에서 영웅적이고 모범적인 인물형상을 통해 “抗日”과 “鬪爭”이라는 애국주의와 집단주의를 고취시키는 주제를 돌출시키고 있다면, 『혼돈』과 「소작농가의 아이」에서는 자전적인 서사를 통해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II. 創作 生涯와 背景

『국경선에서』의 주인공 劉强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의용군에 투신하고, 일제와의 투쟁을 통해, 또 그 지도부의 잘못된 노선을 시정해 가면서, 올바른 抗日의 길을 걸을 것을 고취한다. 抗戰이 第一善이었던 시대에, 20대 초반에 이른 젊은이는 망설임

3) 장편소설 『국경선에서』는 上海의 文化生活出版社에서 1939년 11월에 단행본으로, 장편소설 『혼돈(混沌)』은 桂林의 三戶書店에서 1944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고, 단편소설 「소작농가의 아이(莊戶人家的孩子)」는 1945년 9월에 『文藝雜誌』제1권 제3기에 발표되었다.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 투신하였다. 하지만 救國이란 높은 이상을 품고 항전대열에 뛰어든 그 집단 속에도 부조리는 존재했고,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劉强은 한국 독립군과 만주족 친구이자 동료인 季偉剛, 아버지의 장사 동료이자 현재는 항일동지인 王四麻子 등 모든 항전전사들에게 인간적인 애정과 우정을 품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시대의 모범적인 인물로서 형상화되었다.

『소작농가의 아이』는 주인공 중국소년 連聚가 몸이 아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엄마를 따라 아버지의 소작지인 韓人마을로 가서 한 학기 정도 살게 된 경험을 쓴 것이다. 그곳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의 軍糧마을 사이에 있는 삼각지대이다. 그곳에서 15살의 連聚는 韓人 소작농 金秉湖의 딸인 寶莉를 알게 되고, 청소년기의 이성에 눈을 뜨게 되며 寶莉와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게 된다.

『혼돈』은 『국경선에서』의 청년 劉强과 『소작농가의 아이』의 소년 連聚의 유년시기가 배경이고, 줄거리는 한국의 淸津港과 가깝고, 러시아의 항구와 인접한 중국 국경지역의 소도시에서 태어난 連兒(본명 姜步畏)의 유년체험이다. 이 소설은 불안정한 시대의 북방 변경의 중국적 요소와 이국적 요소가 갈마드는 특이한 분위기가 아이의 천진한 시선을 통해서 잔잔하게 서술된다. 또한 아이가 사물을 익히고 세상을 알아가는 순간순간의 생생한 감정묘사와,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논리적이지만 합리성을 갖는 그들 나름의 세계가 북방의 자연풍광과 어우러져,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성장소설의 可讀性을 갖는다.

작가 駱賓基는, 본적은 산둥(山東) 평두(平度)지만, 지린(吉林) 훈춘(琿春)의 중류정도의 상인가정에서 태어났다. 자전적 장편소설 『혼돈』의 등장인물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의 아버지 張成儉은 빈농출신이었으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장사기반을 다져 駱賓基가 태어날 즈음에는 훈춘에서 제법 성공한 지역유지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혼란 시기에 파산하고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노년을 보냈다.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출신으로, 또 “두 번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늘 침울했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강인하고 지혜로웠으며, 아버지 사후에는 샅바느질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駱賓基는 1931년 “9·18사건”으로 동북지방이 일제치하에 들자, 고향을 탈출하였고, 그로부터 그의 긴 타향살이가 시작되었다. 그는 베이징대학에서 잠시 청강을 하다가 항전이 발발하자 사오싱(紹興)에서 간행물 『군기(戰

旗』를 편집하면서 창작을 시작했다. 1937년 말에는 전선을 떠나, 1939년 다시 홍콩으로 남하, 端木蕻良, 蕭紅과 합류하여 활동하다가 구이린(桂林)을 거쳐서 베이징(北京)으로 되돌아갔다.

駱賓基가 18살이던 해인 1935년에 蕭軍과 蕭紅이 魯迅(1881-1936)의 도움으로 『8월의 향춘』과 『생사의 마당』을 발표하여 문단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에 자극을 받은 그는 1936년 5월 초에 상하이(上海)로 가서 처녀작 『국경선에서』 초고를 썼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연달아 세 차례 魯迅에게 편지를 써서 가르침을 청하였으나, 魯迅은 병이 중하여 그의 원고를 볼 수 없었다. 魯迅 사후에, 『국경선에서』는 茅盾(1896-1981), 巴金(1904-2005) 등 중견작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1939년 11월 상하이의 文化生活出版社에서 필명 “駱賓基”로 출판되었다. 그는 이후 단편소설 「베이왕위엔의 봄(北望園的春天)」과 소설집 『대 상하이의 하루(大上海的一日)』(1938)와 『여름한철(夏忙)』(1939), 『동부전선별동대(東戰場別動隊)』(1940), 『물과 불 사이(水火之間)』(1940), 『앵무새와 제비(鸚鵡和燕子)』(1941), 『우페이여우(吳非有)』(1942), 『어떤 고집쟁이(一個偏強的人)』(1944), 『범죄의 증거(罪證)』(1946), 『혼돈(混沌)』(1947), 『쪽빛 두만강』(1947)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신중국 후의 작품 『왕씨 엄마(王媽媽)』(1953), 『설 휴가(年假)』(1956) 등까지 합하면 소설집만 보더라도 20권에 가깝다.⁴⁾

『국경선에서』, 『혼돈』과 「소작농가의 아이」 3편의 공통적인 공간적 배경은 駱賓基 자신의 고향이며, 시간적 배경은 작가 혹은 각 작품의 주인공의 성장과정, 즉 유년—소년—청년 시기의 연속성을 갖는다.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駱賓基의 고향 훈춘은 한국, 중국과 러시아 세 나라의 국경지대이다. 『국경선에서』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항일의식, 항일투쟁 고취라는 주제를 중국 청년 劉強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면, 『국경선에서』의 거시적 주제와

4) 허세욱, 『中國現代文學史』, 서울, 법문사, 1999, 제428-429쪽.

창작배경 작품명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인물구성		
	창작 시기 (출판 시기)	주인 공의 성장 시기	작가의 고향	작품의 무대	주요인 물	부차적 인물	
혼돈	1941년 가을~ 1947. (1947.)	유년: 1~10 세 (1917 년~ 1927 년경)	琿春: 韓·中 ·蘇 3국 국경지 대	척박한 국경 근처 소도시	連兒과 그의 가족	密加 와 朴斗寅, 金秉 湖, 韓人 아이들	러시 아인 만주 인 일본인
소작농가의 아이	1941년 가을 (1942.1 0.13~194 3.4.1)	소년: 15세 (1932 년경)		아버지 의 소작지	連聚와 韓人 소녀 寶莉	韓人 金秉 湖 등 소작 농	가난 한 중국인 마부와 根土
국경선에서	1936년 (1939. 11)	청년: 20대 초반 (1936 년경)		H縣 (항일유 격대활동 지역)	劉強과 중국인 유격대원	두 부류의 韓人: 朝鮮紅黨 과 李特務 등	韓人 노동자 만주 인, 일본 인, 러시 아인

달리 『혼돈』은 姜步畏 연대기, 즉 姜步畏 일가의 변천사이며, 「소작농가의 아이」는 이성에 눈을 뜨게 된 중국소년 連聚의 매력적인 이국소녀 寶莉에 대한 순수한 우정을 묘사한 신변소설이다.

세 소설의 무대와 韓人을 반영한 상황에 따라 보면, 「소작농가의 아이」는 중국이

무대이면서 韓人이 비교적 주요인물이며, 『국경선에서』와 『혼돈』은 중국이 무대이면서 韓人이 부차적 인물인 작품이다.⁵⁾ 작가는 이 소설 3편에서, 동일한 무대와 인물 배경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뒤엉켜 함께 사는 지역의 사회상과 각 민족들의 독특한 문화, 세태변화 속에서 만주 땅으로 이주한 韓人들의 비참한 운명과 고달픈 삶과 시대정서, 척박하긴 하지만 그 부침의 역사를 포용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국의 북방대지의 자연풍광을 묘사하였다.

Ⅲ. “孤獨”과 “疏外” 양상

『국경선에서』, 『혼돈』과 「소작농가의 아이」 세 작품의 타임라인은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한 해부터 1937년 일제의 滿洲國 시대 직전까지이다. 오랜 세월동안 동북에 뿌리내린 토박이 중국인과 이주민인 韓人을 포함하여 러시아인, 만주인, 회족 등 여러 민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국경선 작은 지역을 무대로,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특정 시대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한편으로 위태로운 공존 속에서, 질박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내재한 채로 살아야했다. 駱賓基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한국 실향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린성 훈춘시에서 태어나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그의 작품 속에는 작가 자신의 “동북인”으로서의 성장체험과 더불어 동북지방을 무대로 하여 살아가는 韓人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의 삶과 투쟁이 반영되어 있다.

이국땅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했던 韓人의 사회적 문화적 상태 역시 그렇게 단순치는 않았을 것이다. 駱賓基의 자전체 소설인 『혼돈』에 등장하는 한국소년 密加나 韓人들은 작가가 어린 시절 훈춘에서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이며, 「소작농가의 아이」에 나오는 한국소녀 寶莉 또한 駱賓基 자신의 직접 체험을 형상화한 것이고, 『국경선에서』에 등장하는 朝鮮紅黨은 이때 보고 들은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다.⁶⁾ 중국으로 이주한 韓人들은 만주 각 지방에서 韓人村을 이루거나 흩어져 살면서

5) 박재우, 「中國現代 韓人題材小說 試探」, 『20世紀中國韓人題材小說研究』, 서울, 韓國外國語大學校, 2005, 제30-34쪽.

6) 박재우, 앞의 글(5), 제37-38쪽.

현지 중국인 지주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물리거나, 혹은 일제에 착취, 탄압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匪賊들에게 재난을 입는 등 고난에 찬 삶을 살면서 抗日民族運動, 특히 抗日地下鬪爭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본인 세력을 업고 중국인들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일본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장물판매를 하거나 창기로 전락하기도 하는 등 삶의 막판으로 몰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⁷⁾

나는 완전히 이런 긴장된 분위기에 의해 전염되어 독립당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나는 독립당이 와서 뭘 할 건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두렵기만 했다. 게다가 독립당과 붉은 수염은 내 머리 속에서 같은 의미였고, 나에겐 독립당은 한국 사람이고, 붉은 수염은 중국 사람이라는 것에 불과했을 뿐이다.

我完全被這緊張的氣息所感染, 而且知道是獨立黨要來了, 實際我也不知道獨立黨來作什麼, 只覺得害怕; 而且獨立黨和紅鬍子在我腦子裏是同一意義的, 不過我只分出獨立黨是韓國人, 紅鬍子是中國人而已。⁸⁾

어린 連兒의 눈으로 보면, 獨立黨은 그저 조선 사람이고, 붉은 수염은 그저 중국 사람일 뿐이었지만, 韓人은 동북지방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하였고, 또 고향을 등지고 낯선 이국땅에서 생계를 도모해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비굴하기도 했고, 때로는 교활하기도 했다. 작가에게 朝鮮紅黨은 독립군이 모델일 것이고, 소작농 金秉湖는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인 지주에게 아첨해야 하는 수많은 가난한 조선 민중의 하나였을 것이고, 李特務나 朴斗寅 같은 韓人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중국인 등 이민족과 동족을 핍박하는 부정적인 韓人 모델이었을 것이다.

그(李特務)는 紅黨을 붙잡은 후에 많은 포상금을 받고, 廣平(일인 군관소위)의 신임을 얻을 궁리만 했다. 하긴 그는 회회낙락 할만 했다. 조선인 일꾼 중에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는데) 가장 열심히 당찬 사람이니.

他切盼在抓些紅黨以後, 能得到多量的獎金。廣平的信賴。在他是值得欣喜的。朝鮮

7) 박재우, 앞의 글(5), 제29쪽.

8) 駱賓基, 『혼돈(混沌 : 姜步畏家史)』, 上海, 新群出版社, 1947, 제71쪽.

籍職員裏, 他是最賣力而精悍的一人。9)

이러한 李特務는 韓人 노동자들을 속여 도망가라고 시키고는 뒤에서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에, 일인 군관에게 朝鮮紅黨이었다고 거짓 보고하고 제 욕심을 채운다. 駱賓基의 작중인물만이 아니라, 당시 고향산천을 등진 모든 韓人 피난민들은, 抗日이니 獨立이니 하는 거시적 이상에 투신하기에 앞서 이국타향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민족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일이 더 절박했다. 따라서 그들은 소작농으로, 노동자로, 일본인이나 중국인과 러시아인, 혹은 만주인들의 지배하에 놓였고, 이민족의 집단적인 멸시와 따돌림을 감내해야만 했다.

주권을 잃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국타향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과 신분을 인정해야 하는 삶 자체가 굴욕적인 것이었고, 그러한 벼랑 끝에 몰린 생존환경은 韓人들에게 “고독”과 “소외”를 느끼게 했다. 한국 고유의 습관과 문화를 간직한 채로 이국땅에서 살아가야하는 이방인으로서의 韓人은 필연적으로 고독하고 또 소외된 계층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韓人의 집단적인 “고독”과 “소외”는 駱賓基의 작품에서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 작품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韓人의 차림새, 생활, 문화, 韓人 마을의 풍광묘사는 당시 중국인의 이국정서를 보여준다.

일제의 침략은 동북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중국인에게도 韓人과 같은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주었고, 중국인들을 항전에 투신하게 했으며,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만주정부의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는 “소외”를 경험하게 했다. 일제의 동북지배는 한국인에게나 중국인 모두에게는 살육과 파괴의 공포뿐 아니라 삶의 터전인 고향땅을 등져야 하는 이산의 아픔과 타향에서 생계를 도모해야하는 고통을 겪게 하였고, 작가 駱賓基에게서 보면, 그의 고향 훈춘은 바로 그러한 식민역사가 빚어낸 “고독”과 “소외”의 공간이었다.

1. 작품 속의 “孤獨” 양상

9) 駱賓基, 『국경선에서(邊陲線上)』,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4, 제34쪽.

駱賓基의 세 작품의 작중 인물들을 “고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의 결핍이다. 다시 말해서 세 작품을 관통하는 정서는 인간적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야기된 등장인물 각자의 “고독”이다. 인간애의 상실은 주인공 連兒——連聚——劉強的 “고독”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소작농가의 아이』에서 連聚는 金秉湖의 딸인 소(牛)치는 아이, 선녀 같은 한국소녀 寶莉를 처음 본 순간 그만 훌쩍 반해버렸다.

寶莉가 왜 金秉湖의 딸이람! 황궁에 사는 임금님의 공주여야지! 寶莉의 매 묻은 치마, 빛바랜 붉은 저고리까지도 내 눈에는 반짝이는 선녀의 비단옷인걸! 게다가 그 애의 두 맨발은 얼마나 예쁜데!

爲什麼寶莉會是金秉湖的女兒呢! 這應該是住在皇宮裏的帝王的公主! 就是寶莉并不潔白的布裙, 褪色的紅小襖, 在我眼睛裏都是閃光的彩緞, 而且她赤着兩腳是多麼醉人的一種風姿呀!¹⁰⁾

그 애를 찾아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은 얼마나 슬프고 처량했던가? 한데 엄마는 連聚가 여동생들을 데리고 놀지 않고, 밖으로 나도는 것과 또 지주집 도령이 소작인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고 꾸중만 하신다. 더구나 連聚는 조선말을 하지 못해서, 중국인 짐수레꾼의 둘째 동생 根土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어야만 寶莉와 겨우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寶莉의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하얀 이가 얼마나 예뻐는지, 連聚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혼돈』의 連兒에게서 보면, “고독감”은 더욱 컸다. 엄마가 여동생을 낳을 때마다 자신은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했고, 엄마의 사랑을 빼앗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어른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작가는 連兒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하소연하는 장치로, “讀者”를 끌어들인다.

10) 駱賓基, 소작농가의 아이(莊戶人家的孩子), 『駱賓基小說選』,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2, 제51쪽.

독자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낯빛이 어떻게 창백해지고, 입술이 어떻게 일그러지고 또 얼마나 꼭 다물고 있었는지. 머리를 숙인 채, 손으로 옷에 달린 단추를 얼마나 사정없이 쥐어뜯었는지. 하지만 저 자신도 그런 줄을 몰랐어요.

讀者可以想像到，那時我是怎樣悲哀，臉色怎樣敗喪，嘴色是怎樣彎曲着而閉得緊緊的。俯着臉，抓着自己的衣扣，手在有力的撕扭衣扣，却又不自知。¹¹⁾

連兒를 가장 슬프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은 엄마의 불운한 처지이다. 물론 다섯 살의 連兒는 그러한 엄마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살고 있는 동북의 척박한 소도시에서, 엄마는 언제나 말이 없었고 내가 제1장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그윽하고 고요했다. 창밖의 화분에 물을 주고, 홍치강변에 가서 빨래를 하는 것 말고는 집안 깊숙이 박혀서 외출도 안했다. 설령 아빠의 손님이나 친구들의 집에 모임이 있어도 거절하고 가지 않았는데, 마치 아빠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아빠의 손님이나 친구들까지도 덩달아 미워했다.

……現在居住的荒僻的縣城，母親總是無言無息的像我第一章裏所描述的那樣幽靜，除了澆澆窗外的花盆，到紅旗河洗洗衣服，一向是深居不出，即使父親的賓朋的家庭有宴會，也拒而不赴，彷彿對於父親有着深深的恨，因而牽連到對於父親的賓朋也嫉視了。¹²⁾

連兒의 엄마는 열여덟 살 때에 마흔두 살인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고, 그것은 엄마의 활달하고 밝은 성격을 그토록 울적하게 만든 이유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산한 후에 南海(山東 膠州半島 부근) 고향집으로 돌아가자고 엄마에게 아무리 권유해도 끝내 함께 가려하지 않았고, 엄마는 連兒에게도 늘 “너는 아빠 따라 가라. 엄마는 克克(여동생)하고 여기서 살란다.” 하여, 어린 連兒를 한바탕 울리곤 했다.

『국경선에서』의 劉強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쳐 투쟁하고자 하지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마당에, 동지들 간에서, 자신의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불확실한 미

11) 駱賓基, 앞의 책(8), 제25쪽.

12) 駱賓基, 앞의 책(8), 제74쪽.

래에 대한 망설임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다. 또한 그는, 예전엔 아버지의 사업동료였고 현재는 혁명동지인 王四麻子가 劉強에게 계속 공부하여 몰락한 아버지의 유업을 재기 시킬 것을 종용하는 데서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다. 그는 한편으로 “救國救民”의 기치 아래 생명을 던진 무장투쟁 활동에 뛰어든 동료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또 그러한 타락하고 타성에 젖어가는 군상들 속에서 좌절하고 고립감을 느낀다.

이상의 3편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連兒는 외부세계에 대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환상적인 꿈을 갖고 있었다. 세상물정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連兒의 치기어린 장난은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순화되었다. 하지만 스물이 넘어 성인이 된 劉強에게서 보면 고향, 그 낭만적인 도시는 전쟁으로 인해 전부 파괴되었으며, 삶과 죽음을 가늠할 수 없는 피비린내와 화약연기 자욱한 전쟁터에서 환상은 사라졌다. 역사의 수레바퀴 위에서 抗日현실은 평범한 중국 젊은이의 삶을 바꾸어버렸다. 평탄한, 장밋빛 인생길을 갈 수 없게 된 젊은이는 예정된 삶을 버리고, 분명히 정의된 공개적인 혁명, 항전 앞에서 투쟁적이고 전투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2. 작품 속의 “疏外” 양상

동북지방은 특히 현대사에서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특수한 문학적 메타포를 갖는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보면, 망국의 한을 안고 피난의 길을 떠난 韓人들이 고난을 딛고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투쟁의 현장이며, 이산과 실항의 아픔을 지닌 채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이역만리에서도 역시 주변화 되는 “소외”의 공간이다. 중국인에게는 전통적으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라는 지역적인 소외의 공간이었고, 일제의 침략 아래 중국인의 몰락과 실항을 야기한 고통의 현장이며, 또 갖가지 사연을 지닌 이민족들이 몰려드는 혼란하지만 그런대로 주변부 문화와 자체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생존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 밖에서 “소외”당한 지방도시의 억압된 분위기는 기존 세력가였던 중국인의 몰락 속에서 더욱 深化되고, 이민족의 지배하에 처하게 되면서, 지역적인 “소외”는 더욱 極化된다.

『국경선에서』의 주인공 劉強의 아버지 劉林의 쓸쓸한 죽음은 몰락해 가는 중국인들의 소외상황을 대변해준다. 기나긴 동북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인은 중원의 지배자이자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그러한 중국인 “중심” 신화는 해체되었

고, 과거의 영웅(=劉林)은 사라졌다. 劉强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만 아니었다면, 전통 신화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子孫으로서, 예약된 미래의 장밋빛 길을 갔을 터였다. 그러나 劉强은 시대의 격변 속에서 자기 한 몸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기성세대의 바람대로 조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분투해야 했다. 『혼돈』의 連兒의 “아버지” 신화, 즉 지수성가한 아버지 姜靑山의 파산은 『국경선에서』의 劉强의 아버지 劉林의 초라하고 쓸쓸한 죽음으로 이어져, 권위적인 아버지의 신화마저 해체된다.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는 외부세계는 “혼돈” 그 자체이다. 당시의 세대와 국경선 자체가 “혼돈”이었고, 어른세계 또한 어린이가 이해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혼돈” 세계였다. 바야흐로 사물을 인지하고 세상을 배워가는 아이에게는 현실자체가 경이로움이지만,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강압적인 시선과 간섭은 아이를 쓸쓸하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혼돈』의 連兒는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해에 태어났다. 하지만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실질적으로 連兒가 사물과 외부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지각이 생기는 연령인 5살 정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姜步畏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갖게 되고, 민족과 조국이란 개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韓人과 중국인은 다르다는 “차이”를 인지하게 되는 10살 정도까지의 5년 동안이다.

어린 連兒의 소외감은 가정과 외부세계 양면에서 야기된다. 어른들이 대화를 할 때 아이를 참견하지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놀고 싶지만, 또래 친구가 없고, 또 어른들은 그러지도 못하게 한다. 사실 어른들이 連兒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견잡을 수 없이 혼란한 “戰時” 상황 때문이었지만, 連兒에게선 이해될 수 없는 별천지의 상황이다.

함께 놀 또래 친구가 없고, 무슨 장난감도 없고, 사는 것이 아주 재미가 없다.

沒有同年歲的小朋友一壞兒玩，也沒有什麼玩具，日子過的那麼無趣。¹³⁾

連兒의 친구는 洛布達와 小三點이라는 개들뿐이었다.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외출을 했을 때, 連兒는 아빠 친구가 장난으로

13) 駱賓基, 앞의 책(8), 제8쪽.

마셔보라고 주는 독한 술을 마시고 취해버리는 돌출행동을 한다. 連兒는 여동생이 생기고부터 더욱 소외감을 느낀다. 아기를 만지고 싶어서 가까이 가면 엄마는 아기만 사랑하는지 자신을 밀쳐내고, 아기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므로,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영영 울면, 엄마는 “울보”라고 나무라신다. 아버지의 차임과 인삼을 팔고 환전을 겸하던 가게 문을 닫았을 때, 連兒는 중국 여자아이 琴琴과 그 먼지 쌓인 어두컴컴한 가게 안에 틀어박혀서 온종일 놀곤 했다. 가난한 韓人 金秉湖의 아들 密加를 보았을 때 이유 없이 몸싸움을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韓人 학생들과 패싸움을 하면서 학교 내에서 못 말리는 악동이 된다. 이러한 외부세계에 대한 적개심의 표출과 돌출행동은 모두 부모님의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連兒의 “소외”에 대한 대응법이었지만, 어른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고 그의 “소외” 상황만 심화될 뿐이었다.

3. 어휘에서 드러난 “孤獨”과 “疏外” 양상

『혼돈』 제1장 제1절의 첫 단락을 보자.

내가 태어난 소도시는 러시아 항구 근처인 중국 변두리이다. 조선의 淸津港과도 가까워서 갈 겨울 두 계절의 아침이면 바다의 물안개가 영원히 자욱했고, 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 집 마당을 가득 채웠다.

날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꿰어앉아서 창문 위에 그 우윳빛 연기와 안개가 맺힌 유리창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것이 왜 우리가 밥을 먹을 때쯤이면 모두 걷히고, 뜰 가득한 햇살과 창밖의 나무화분대와 붉은 꽃 푸른 잎의 아름다운 색깔을 모두 드러나게 하는지 이상했다.

我出生的縣城，是遠近俄羅斯海口的中國邊境。距離朝鮮的淸津港又很近，所以秋冬兩季節的早晨，海霧永遠都是很濃重的，充滿了街道，充滿了我們住的院落。

每天我一睜開眼睛，就跪窗口上，望着那壞現着乳白色煙霧的玻璃，奇怪它爲什麼在我們吃過飯的時候，會變成透明的，把鋪滿院子的陽光，窗外的花盆木架，和花紅葉綠的鮮美色彩都出現的。¹⁴⁾

14) 駱賓基, 앞의 책(8), 제2쪽.

가을부터 겨울까지, 물안개(海霧)가 자욱한 청진항 앞바다의 해 뜨는 시간 전후의 아침풍경이 마치 풍경화 한 폭처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 항구의 아침거리에 자욱한 물안개는 중국 국경선 쪽에 사는 아이 連兒의 집 앞마당에까지 가득 채우고 있다. 아침잠에서 깬 꼬마는 그 신비함에 매료되어, 호기심에서 눈을 뜨자마자 유리창에 그려진 물안개의 흔적을 바라보며, 또 햇살이 비칠 때면 왜 물안개는 사라지고, 또 자연의 아름다운 빛깔을 남김없이 드러내는지를 이상하게 여긴다. 순진무구한 아이의 눈에 비친, 첫 번째로 대면한 신비한 자연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대한 묘사가 이처럼 아름답고 감미로울 수가 있을까.

이 『혼돈』의 첫 단락에는 駱賓基의 『국경선에서』, 『혼돈』과 「소작농가의 아이」 3편의 소설의 문학적 메타포가 압축되어 있다. 항구 앞바다에 아침이면 떠오르는 “물안개(海霧, 煙霧)”는 소설의 제목 『혼돈』과 마찬가지로 시대, 역사, 민족, 사회, 지역과 주인공 連兒를 비롯한 모든 등장인물들의 삶과 정서 등을 암시하며, “영원히(永遠)”, “깊음(濃重)”, “가득 참(充滿)”은 혼란스러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그렇게 크고, 오래되었고 깊음을 의미한다. “가을과 겨울(秋冬)”은 찬바람이 불고 “눈(雪)”이 내리는 계절이다. 계절이 주는 정서는 “스산함”, “고요함”, “쓸쓸함”과 삶의 “고달픔”과 함께 삭풍이 몰아치듯 抗戰의 “격렬함”, “절박함” 등의 의미를 갖는 반면에, “아침(早晨)”, “햇살(陽光)”은 아이의 눈에 비친 자연풍광의 아름다움과 미래의 밝음과 희망을 상징한다.

『국경선에서』의 무대는 H시이다. 이곳은 러시아 영토와 경계를 나누는 “土字碑” 뒤쪽에 위치하고 韓人, 중국인, 일본인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변경의 소도시로서, 일본군을 상대로 朝鮮紅黨이 독립 무장투쟁을 하고, 劉強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항일투쟁을 하는 격전의 현장이다. 이 소설에서 중국인 항전전사들의 대화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속에 자주 등장하는 “日”은 태양과 일본을 가리키는 이중의미를 담고 있다.

아버지의 소작지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조선 軍糧마을 사이의 삼각지이다. 우리 소도시에서 4.5km 떨어져있고, 조선 우마차를 타고 가면 길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

父親的窩棚是在俄羅斯的海參威和朝鮮軍糧城之間的三角地。距離縣城九十華里，坐朝鮮牛車，得在路上宿一宵。¹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작농가의 아이」의 무대 또한 한국, 중국과 러시아 세 나라의 접경지역이다. 連聚가 韓人 소녀 寶莉를 보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根土와 함께 나갔다는 말을 듣고 홀로 돌아오는 밤길에서 갖는 고독감과 그 애들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소외감은 이민족이 모여 사는 북방 마을과 깊은 가을밤의 풍광과 어우러져, “질은 어둠(幽黯)”, “스산함(肅殺)”, “땅거미(黑影)”, “외따로(孤零零)” 등의 어휘로 표현된다. 이 소설에서 묘사한 북방의 가을풍경을 보자.

북방의 가을에는 서리가 아주 많이 내리고, 9월에 나뭇잎이 길에 떨어져 도처에서 뒹굴었다.

北方的秋天霜很大, 九月間樹葉在路上到處飛滾。16)

눈이 내릴 즈음에 결국 나와 엄마, 여동생 둘은 우리가 사는 소도시로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길은 짜증나고 재미라곤 하나도 없었다. 또 처음으로 두 여동생을 눈여겨보았더니 집에 있을 때보다 여위었다.

下雪的日子到了, 終於我和母親以及兩個妹妹回城裏來, 一路上更是怏怏無趣, 并且第一次注意到兩個妹妹, 比在城裏瘦了。17)

위의 두 예문에서 보면, 북방의 가을은 빨리 오고 서리도 많이 내리며, 9월에 벌써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눈이 내릴 때—북방의 짧은 가을을 지나 추위가 닥치는 겨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여동생이 집에 있을 때보다 약간 마른 것을 보니 그 애들도 그곳 생활이 즐겁지 않았던 모양이지만, 寶莉와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즐겁지 못했던 連聚에게, 눈(雪)은 寶莉와의 이별을 고하는 메신저로서의 의미를 더욱 갖는다.

이 외에도 『혼돈』과 「소작농가의 아이」에는 작중인물들의 전체적인 “고독”과 “소외” 정서와 심리를 드러내는 특징적인 어휘들이 있다. 예를 들면, 『혼돈』에서 連兒의 엄마는 언제나 “조용(幽靜)”하고, “말이 없다(無聲無息)”. 이러한 엄마의 조용함은 이

15) 駱賓基, 앞의 책(10), 제46쪽.

16) 駱賓基, 앞의 책(10), 제46쪽.

17) 駱賓基, 앞의 책(10), 제58쪽.

소설의 전체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여동생을 돌보고 있을 때와 어찌다가 한번 최씨 할멈과 당신의 처녀시절을 화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뿐이다. 엄마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된 불운한 처지에 대해 상심하고 울적해 하였고, 그것은 엄마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한 것이긴 하지만, 바깥세상의 격변하는 현실과는 무관하게 안으로만 침잠하는 엄마의 일상과 어린 連兒가 바깥세상을 알고 싶어 하지만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정서와 맞물려 있다. 이 소설의 무대를 관통하는 정서와 분위기는 바로 결코 조용할 수 없고, 치열하고 절박하고 급박하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엄마의 차분히 가라앉은 조용한 자태에서 반어적으로 시대적 역사적 “혼돈”을 구현하고 있다.

IV. 현재적 의미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동북작가”는 분명 특수한 역사와 시대의 산물이며, 駱賓基의 대다수 작품의 주제나 제재에 모두 동북작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역사경험이 있으며, 그것은 작가의 역사의식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다.

沈衛威는 『동북망명문학사론(東北流亡文學史論)』에서, 동북작가들의 작품이 “창작 주체의 감지, 사유, 관념이 일치하며, 창작객체의 제재, 형식, 스타일이 서로 비슷한 것”은 그들의 “집단심리”와 “모방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¹⁸⁾ 謝淑玲은 「루어빈지와 향진문학(駱賓基與抗戰文學)」이란 글에서, 중국의 1930-40년대 향진문학이, “민족해방이라는 시대적 주제 하에, 문학을 전쟁터에서 봉사케 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킴에 있어서 성과는 적지 않지만, 민족의식과 집단의식에만 집중하였고, 또 중국 신문학 현대화 과정의 다른 주제——반봉건적 요구와 민주주의의 선양과 문학창작의 개성과 문학형태의 다양화를 제창하는 면을 소홀히 하고 무시했다”고 지적하였다.¹⁹⁾ 이러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駱賓基도, 특히 『국경선에서』의 주요인물 劉強의 자발적인 鬪

18) 沈衛威, 『東北流亡文學史論』,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92, 제14-16쪽.

19) 謝淑玲, 「駱賓基與抗戰文學」, 丹東, 『丹東師專學報』제25권 제4기, 2003년 11월 5일, 제12쪽.

爭을 통하여 “전투”의식을 대중화시켰고,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국제주의니 하는 시대 주류의식의 선양 면에서도 충분히 공헌을 하였다. 駱賓基의 작품이 문단의 중진작가들에게 주목을 받은 것도 당시의 대다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주제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駱賓基 자신도 신진작가로서 주류문학에 들려고 노력했고, 그의 『국경선에서』는 분명히 그런 작가적 염원과 사회참여의 목적을 담았다. 그것은 동북작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의식”이자 “모방심리”의 소산이었다고 평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다른 동북작가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駱賓基에 관한 연구 자료와 그의 자전적 작품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빈농 출신은 아니었지만, 부친의 파산과 모친의 불운한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신분변화를 겪었고, 그리고 고향을 떠났으며, “救國”과 “救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충실한 작가가 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의 처녀작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경향을 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駱賓基는 『국경선에서』 이후 창작경향의 대전환을 보여주는데, 바로 「소작농가의 아이」와 『혼돈』에서이다.

『국경선에서』부터 「소작농가의 아이」를 거쳐 『혼돈』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이후 文化大革命(1966-1976)시기까지도, 駱賓基의 창작생애가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국경선에서』의 실제 창작시기는 抗戰時期 이전이라고 할 수 있고, 「소작농가의 아이」는 1941년 가을에 쓰고, 1년 뒤인 1942년 10월에 발표된 작품이다. 『혼돈』의 창작기간은 1941년부터 1947년에 이르며, 초판은 1947년이다.²⁰⁾ 1942년 毛澤東(1893-1976)의 『옌안 문예좌담회상에서의 강화(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이하 『文藝講話』)가 발표된 이후에도, 그가 계속 『혼돈』을 출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駱賓基는 『文藝講話』가 제시한 “문예는 정치를 봉사해야 한다(文藝爲政治服務)”는 창작 원칙과는 전혀 다른 『혼돈』과 같은 주변부 담론 제재의 작품을 계속 창작하고 발표하였다.

「소작농가의 아이」와 『혼돈』과 『국경선에서』의 표면적인 주제는 동일하지 않아 보이며,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작품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3편의 소설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주제 내에 있고, 「소작농가의 아이」와 『혼돈』에서는 오늘의 “나”의 원형적 상징인 아이의 시선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전면에서 드러내서 파헤치고 있다.

20) 韓文敏, 『現代作家駱賓基』, 北京, 燕山出版社, 1988, 제278-288쪽.

아동의 관점에서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어른들이 자신들을 깨는 동일한 잣대로 아이들을 깨는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아이 자체가 논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논리성이나 합리성을 갖고 전개될 리가 없다. 당연히 파편적이고, 순간적이고, 감정적이다. 기존의 이성(=어른)의 잣대로는 이러한 아이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중심의 관점에서 주변부를 보는 것도 주변부를 왜곡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그 당시 시대와 사회는 논리성을 거부하는 아이처럼 또 아이의 해석처럼 논리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특수한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서 주변부에 대한 권위적인 중심의 왜곡과 억압은, “고독”하고 “소외”된 인간의 보편적인 강박관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세 작품의 작중인물들에게서 구현되었다.

이 3편의 소설은 모두 駱賓基 자신의 체험과 보고 들은 것을 계기로 작품화가 이루어졌고, 작가는 작품마다 주인공의 성장을 통해서 당시 동북인, 나아가서는 중국인의 시대의식과 세계관의 “형성”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작가의 이들 작품 속에서, 韓人은, 일제의 앞잡이 혹은 부화뇌동하는 자와 중국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자, 친일의식을 갖고 또 중국인들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대립하여 중국인을 괴롭히거나 협박 갈취하는 부정적 인물과 주인공이나 주요인물과 갈등을 야기하고, 그들의 “소외”와 “고독” 상황을 심화시키는 부차적 인물 혹은 抗日이나 피압박민족간의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抗日의 필요성 등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 동참하는 인물로서 형상화되고 있다. 당시 韓人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시대적 배경 하에서 중국을 무대로 하여 망국의 한과 이산의 아픔을 안고 분투하며 살아야 했다. 이 세 소설의 창작 시기에서 보면, 駱賓基는, 戰爭과 鬭爭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을 때, 당시의 문단의 주류 담론을 답습하기 보다는 인간의 내면세계와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색하였다. 창작의 視點이 아동에서 세계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라는 점에서 보면, 작가는 중국인 혹은 韓人만의 특수한 “소외”와 “고독” 상황에만 특별히 주목한 것은 아니며, 동북지방의 “식민”시기라는 역사상황에서, 抗戰과 鬭爭에 맹목적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주변부에 처한 아이의 시선을 통하여, 중심에서 유리된 동북지역과 그곳 사람들의 “고독”과 “소외” 양상을 탐구하였다. 작가는 동시에 오히려 중심에서 멀리 벗어난 국경지대는 여러 민족의 다양한 삶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성과 역동성을 보이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고립”된 공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중시하였으며, 그 주변부의 여러 민족 속의 농민, 노동자, 소시민 등 하층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주변이야기

와 그들의 “고독”과 “소외” 양상을 포착하고 서술하였고, 주변화 된 동북지방과 동북인의 자아에 대해 해부하였다.

V.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경선에서』, 『혼돈』과 『소작농가의 아이』 3편의 무대는 駱賓基의 고향이자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소외된 도시이다. 물론 고향은 향수로 인하여 이상화되기 마련이지만, 駱賓基에게 “고향”은 생명의 원천이자 원형이었고, 그 몰락하고 있는 소외된 도시, 주변부의 억압된 분위기, 고향의 역사와 특수성, 어린 시절의 생활, 고향의 부모 등 고향의 모든 것이 문학적 토양을 제공해주었다. 駱賓基에게서 보면, 고향의 원초적 지역적 소외, 한국,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선이 만나는 변경 지역,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이 척박한 환경에 처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심에 동화되지 않았고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활력과 순환패턴을 지닌 “동북”이었다.

『국경선에서』는 성인의 현실적인 눈으로 본 세계이고, 『혼돈』은 동심의 눈으로 본 미화된 세계이다. 駱賓基는 『혼돈』에서 동북 국경지대에서 성장한 “동북인”의 원형을 그렸다면, 『국경선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인물형상으로서 중국인 劉强을 빚어냈다. 劉强은 권위적인 “아버지” 신화가 해체된 이후, 절박한 시대의 새로운 인간형으로서 창조되었고, 그것은 劉强의 항전과 투쟁 활동에서 구체화된다. 작가의 작중 인물에 대한 서사는, 『국경선에서』는 격앙된 감정으로 일관하며, 역사의식으로 무장한 전사가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를 취하였고, 『혼돈』에 이르면, 역사적 소재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앞의 『국경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작 시기, 주인공의 연령과 시대적 상황, 고향 등 배경에서 확보하면서도, 『국경선에서』에서 보였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아동의 시각에서 본 낭만, 역사, 아버지, 어머니, 동북의 꿈,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변화는 駱賓基가 『혼돈에서』, 영웅 신화 패턴에서 보이는 영웅의 어린 시절의 특정한 일화가 아니라 평범한 중국아이가 목격한 고향과 시대와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고도의 문학성을 추구한 것이다.

동북지방은 중국인에게 절대 抗戰과 鬪爭의 시대와 공간이었다면, 韓人에게는 독립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시대와 공간이었고,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인에게는 주변인, 韓人에게는 이방인으로서의 “고독”과 “소외”의 공간이었다. 또한 그 시대는 일제의 침략이라는 “武力”과 “暴力”의 유린 아래 여러 민족의 무고한 양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착취당하고 파괴당하던 시기였다. 그 시대에 각 민족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은 해체되었으며, 인성을 억압하는 권위적인 폭력과 비인간적인 식민 지배는 필연적으로 피억압 민족의 “소외”와 “고독”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국경선에서』나 『혼돈』과 「소작농가의 아이」 3편의 공통적인 “고독”과 “소외”는 韓人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요인물인 중국인, 부차적 인물인 기타 이민족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駱賓基의 작품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추구 면에서, 민족적 고독과 소외뿐만 아니라 개인적 고독과 소외 문제를 다루었고, 이러한 식민역사에 대한 駱賓基의 목격자이자 경험자로서의 창작 경향과 세계관은 동북지방에 대한 탈중심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동북지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만, 동북지역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駱賓基의 메시지는 동북인의 뿌리 찾기와, 더 나아가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혼돈” 속에서 살아야 하는 중국인의 정체성 모색이었으며 실험이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 駱賓基, 『邊陲線上』,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4년
 , 『混沌 : 姜步畏家史』, 上海, 新群出版社, 1947년
 , 『駱賓基小說選』,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2년
박재우, 『20世紀中國韓人題材小說研究』, 서울, 韓國外國語大學校, 2005년
沈衛威, 『東北流亡文學史論』,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92년
嚴家炎, 박재우 옮김, 『현대소설유과사』, 서울, 청년사, 1999년
秦 風, 『1904-1948 : 歲月東北』,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년
韓文敏, 『現代作家駱賓基』, 北京, 燕山出版社, 1988년
허세욱, 『中國現代文學史』, 서울, 법문사, 1999년

논문

- 謝淑玲, 「駱賓基與抗戰文學」, 丹東, 『丹東師專學報』제25권 제4기, 2003년 11월 5일

Abstract

The Study on Solitude and Alienation
in Luo Binji's Novels with Koreans as Supporting Characters

Bae, Do-Im

All Luo Binji's literary works have much in common in terms of their themes: the profound deliberation on one's own nation and its people; the deep sympathy for the devastated human nature and pains which resulted from wars; longing for one's childhood; and a sense of nostalgia for his home, Dongbei, and root.

Luo Binji's novels, "On the Frontier" and "Chaos", and a story named "A Child from Tenant Family," used his own hometown Hunchun as setting while successively describing growing up of the writer himself or a hero of each writing: from infancy(Chaos) to childhood(A Child from Tenant Family) to adolescence(On the Frontier). Although the main characters in his writings were mostly Chinese, there were also supporting characters including Russians, Manchurians, Japanese and Koreans as well. In his three literary works, Luo Binji reproduced the times and historical circumstances in which he had lived as a complete literature, tapping into his own experience. He also deliberated on universal human beings' introspective 'solitude' and 'alienation' which had been shadowed by comprehensive arguments such as resistance to Japan and racial conflict.

Key words : nostalgia, childish innocence, resistance to Japan, identity, Solitude, Alienation.